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백신은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자폐증은 인간 다양성의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자폐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적 상호작용, 언어, 행동 등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폐증은 복합적인 특성을 보일 수 있지만, 인간의 다양성을 이루는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한 건의 조작된 연구가 오랜 불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백신과 자폐증의 연관성에 대한 많은 우려는 Andrew Wakefield가 학술지 The Lancet에 발표한 연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연구에는 12명의 아동이 참여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들이 MMR 백신을 접종한 직후 발달상의 차이에 대한 초기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Wakefield는 MMR 백신과 자폐증 사이에 명확한 과학적 연관성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MMR 백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10년 The Lancet은 해당 논문을 철회했습니다. 조사 결과 Wakefield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윤리적으로 행동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Wakefield는 아들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아이들에게서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Wakefield는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에게 불필요한 침습적인 시술을 받게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미 MMR 백신에 우려를 갖고 있던 부모들로부터

연구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의료위원회는 Wakefield에게 30건의 전문직 비위 혐의에 대해 유죄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그의 의사 면허가 박탈되었으며 의료 행위도 금지되었습니다.

이 조작된 연구로 인해 일부 보호자들은 MMR 백신을 불신하고 자녀의 접종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결국 전 세계적인 홍역 재유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연구가 처음 발표된 후 28년 동안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만 약 9만 건의 홍역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1991년 홍역이 퇴치된 것으로 간주된 이후 가장 많은 홍역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2,289건의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Several Large Studies Have Disproven This Myth

Wakefield의 조작된 연구로 인해 백신과 자폐증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연구자들은 백신과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수십 건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중 어느 것도 Wakefield의 연구 결과를 재현하거나 MMR 백신과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타이밍의 문제다

자녀가 자폐증 진단을 받으면 부모와 보호자는 무엇이 자녀의 자폐증을 유발했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생후 약 12~15개월에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백신을 접종합니다.

이 시기는 아동에게 자폐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상의 일치 때문에 보호자는 백신이 자녀의 자폐증 진단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자폐증과 백신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 세부터,

- 아이들이 말을 시작합니다.
- 사회적 상호작용은 더욱 복잡해진다.
- 자폐증 특성은 종종 인식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 어린이들은 MMR 백신의 첫 번째 복용량을 받습니다.

증가는 진단 개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자폐증 진단을 받는 아동의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자폐증의 진단 기준이 확대되고 진단에 대한 접근성도 향상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거보다 자폐증에 대한 인식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부모, 교사, 의사는 자폐증의 특성을 더 잘 인식하고 아동이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자폐증 진단을 받는 아동 중 일부는 과거였다면 진단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자폐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폐증 진단의 증가는 연구자들이 자폐증의 원인을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이론에 따르면 자폐증에는 유전적 요인이 관여하며 출생 전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일란성 쌍둥이 중 한 명이 자폐증 진단을 받은 경우 다른 한 명도 자폐증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약 9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임신 중 환경적 영향도 자폐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 밖의 잠재적 요인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이나 백신 성분이 자폐증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과학적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백신은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MMR 백신은 안전하지만 홍역은 위험합니다

홍역은 폐렴, 뇌 염증, 청력 상실 및 사망을 초래할 수있는 고위험 전염병입니다.

10년에 걸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나 보호자는 안심하고 자녀의 예방접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MRR**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 홍역은 3-4 백만 명의 미국인을 감염 시켰습니다.
- 수백 명이 홍역으로 사망했습니다.
- 수천 명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 거의 모든 어린이가 15세 이전에 감염되었습니다.

IMMUNIZE FOR GOOD

IMMUNIZE COLORADO